

# 베다니 지혜의 창문

(2023-08-20)

## 비전에 인생을 싣다

저자: 양승훈 (전성민 · 유경상 편집)

■ **저자 양승훈** - 밴쿠버기독교세계관대학원(VIEW) 원장을 역임하였고, 현재는 에스와티니 기독교과대학교 총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경북대 사대 물리교육과를 졸업하고, KAIST 물리학과에서 반도체 물리학을 연구했으며 (MS, PhD), 경북대학교 사대 물리교육과 교수로 재직했다. 대학에 근무하는 동안 미국 위스콘신대학에서 과학사(MA)를, 위튼대학에서 신학(MA)을 공부했고, 이때부터 본격적인 창조론, 기독교 세계관 공부에 뛰어들었다. 1997년 기독교 학자들의 모임인 사)기독교학술교육동역회의 파송을 받아 밴쿠버기독교세계관대학원(VIEW)을 설립, 운영하면서 창조론과 세계관 분야의 강의와 글을 쓰는 데 주력했다. 저서로는 『물리학과 역사』, 『과학사와 과학교육』, 『기독교적 세계관』, 『창조에서 홍수까지』, 『하늘나라 철밥통』, 『기독교적 렌즈로 세상읽기』, 『물에 빠져죽은 오리』 등 40여 권이 있다. 특히 최근 지난 30년간 집중해 오던 <창조론 대강좌> 시리즈 7권을 완간했다.

### ■ Short Summary

이 책은 양승훈 교수의 밴쿠버기독교세계관대학원(VIEW) 은퇴를 기념하며, 그간의 사역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 28명의 동료와 제자들이 쓴 글을 모았다. 1부는 현재 자리에 머무르지 않고 자신에게 주어진 소명과 비전을 따라 늘 새로운 곳으로 나아가는 양승훈 교수의 삶을 잘 보여주는 글 다섯 개를 모았다. 1997년 VIEW를 설립하기 위해 경북대학교 교수직을 그만둘 때의 위기의식과 두려움, VIEW를 경영하며 하늘나라 철밥통으로 사는 데서 오는 기쁨과 포만감, 치열하고 정직한 연구 끝에 창조과학회를 떠나야 했던 학문적 소회, VIEW 20주년을 맞아 VIEW 원장직을 전성

민 교수에게 물려줄 때의 이임사, VIEW 교수직을 은퇴하며 새로운 소명을 따라 에스와티니로 떠나는 소식을 담은 글이 담겨 있다. 마치 본토 친척 아버 집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떠나는 아브라함의 삶을 연상시킨다.

2부는 기독교 세계관 운동과 VIEW라는 맥락에서 함께 동역하고 사역했던 분들의 개인적인 경험과 소회를 담은 글들을 모았다. VIEW 첫 강의를 담당하셨던 전광식 교수를 비롯해 최근 VIEW에서 연구년을 보냈던 류동규 교수, 사역 초기부터 깊은 영향을 주고받으며 함께 동역해온 박상은 원장, 학문함의 길을 삶으로 경험하고 배운 제자, VIEW 교수로 가까이 경험하고 느낀 소회를 담은 최종원 교수의 글 등이 실려 있다.

3부는 한때 VIEW 공동체성의 산실이었던 VIEW 국제센터(VGC) 이야기로 시작한다. 이 VGC는 VIEW의 공동체성을 만들어가는 데 매우 중요한 공간이었다. VGC가 필요하게 되었던 배경, VGC 설립 과정, 리모델링과 관리, 그리고 그곳에서 이루어졌던 많은 사역과 만남들, VIEW에서의 공부, 공동체적 사역, 더불어 함께하는 열정적인 경험과 사역 이야기를 모았다.

4부는 VIEW의 첫 졸업생으로 기독교 세계관 운동에 활발히 기여하고 있는 CTC 기독교세계관교육센터 유경상 대표의 글로 시작해 VIEW에서 배우고 익힌 것을 교회, 회사, 학교, 선교지에서 목회자로, 직장인으로, 교사, 작가로, 사업가로 펼쳐내는 졸업생들의 다양한 사역을 소개한다. 기독교 세계관이 빠질 수 있는 전체주의의 위험을 생각해 볼 때 4부에서 느낄 수 있는 삶의 자리와 기독교 세계관 이해의 다양성은 의미심장하다.

## 1부 양승훈이 말하다

마지막 부름을 따라 에스와티니로 갑니다

**예언적 파송:** 존경하는 동역자님들께, 알려드린 대로 저는 금년 9월부터 아프리카의 에스와티니 기독교와 대학교(Eswatini Medical Christian University, EMCU)에서 섬기게 됩니다. 지난 두어 달 동안 EMCU 사역을 준비하면서 저는 오래전인 1997년 12월 7일 서울 승복교회에서 열린 파송식에서 받은 파송패를 다시 한번 찬찬히 들여다보았습니다. 당시 저를 밴쿠버로 파송하셨던 기독교학술교육동역회의 문선재 이사장님은 아쉽게도

2018년에 소천하셨지만 파송패의 내용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파송의 의미를 되새겨 보았습니다.

이 파송패는 24년 전, VIEW 설립을 위해 파송을 받으면서 받은 것인데 이번 EMCU 사역과 관련해서도 예언적 내용이 담겨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한국에 훌륭한 기독교대학을 만들어보자는 마음으로 몇몇 친구들과 더불어 1981년 3월에 기독교 대학설립 동역회(기독교 세계관 학술통역회 전신)라는 모임을 만들고 기독교대학과 관련된 준비 활동들을 하였습니다. 학술지 <통합연구>도 창간하고, 통합연구학회도 만들고, 도서출판 CUP(Christian University Press) 출판사도 만들었습니다. 당시에 제가 출간했던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는 새로운 대학』(도서출판CUP, 1993)이라는 책은 부족하지만 훌륭한 기독교대학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가능한지에 대한 나름대로의 생각들을 정리한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대학을 만드는 것은 몇몇 학자들의 열정만으로 가능한 일이 아님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우리에게 주어진 비전은 훌륭한 기독교대학이 아니라 기독교 세계관대학원을 만들어서 다른 기독교대학들이 훌륭한 기독교대학으로 발전해 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는 동역회 사역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제시하면서 저는 밴쿠버기독교세계관대학원(VIEW)을 시작하기 위해 밴쿠버로 떠났습니다.

밴쿠버에 간 후에는 VIEW를 설립하고 운영하는 데 집중하면서 동역회가 좋은 기독교대학을 만들 수 있게 해 달라는 기도는 중단했습니다. 지난 24년 동안 캐나다의 대표적 기독교대학인 트리니티웨스턴 대학 캠퍼스에서 VIEW를 운영하면서 기독교대학과 관련된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기독교 대학의 이념과 실재를 탐고하기도 했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기존의 기독교대학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더 이상 기독교대학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은 저에게나 동역회에 주신 비전은 아니라고 생각한 것이지요.

그런데 작년 하반기부터 몇 달 동안 EMCU 사역과 관련한 논의를 진행하면서 저는 오래전엔 기도를 중단했던 기독교대학에 대한 비전을 다시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파송패에 적힌 내용 중 “내가 말하였은즉 정녕 이를 것

이요 경영하였은즉 정녕 행하리라.”는 이사야서의 말씀과 “우리는 비록 잊을지언정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고 그 약속을 이루십니다.”라는 구절이 뼈를 때렸습니다. 나는 다 잊어버렸는데…아마 소천하신 문선재 이사장님도 이 파송패의 의미를 다 아시지는 못했으리라 생각합니다.

**아프리카로 떠나면서:** 1997년 11월에 저희 가족이 밴쿠버에 왔으니 캐나다에 온 지 벌써 24년째를 맞고 있습니다. 흰머리가 없었던 40대 초반에 밴쿠버에 왔는데 어느새 65세를 지났습니다. 1983년 9월, 27세의 나이로 경북대 조교수로 부임하여 강의를 시작한 이후 경북대에서 14년, 밴쿠버기독교세계관대학원 VIEW에서 24년을 근무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난 2021년 3월 19일 오후, SCS 501 ‘기독교와 환경문제’ 과목의 필드트립을 마지막으로 현역으로서 VIEW 강의를 마무리했습니다. 이제 저는 8월 31일부로 VIEW 전임교수직에서 물러나 시간강사로서 필요할 때 일부 강의만 할 예정입니다.

창립해서 20여 년간 원장을 맡았던 VIEW 사역에서는 이미 2018년에 신임원장을 세워서 리더십을 물려주었습니다. 제가 2007년에 창간한 학술지 <창조론 오픈 포럼>은 이번 8월까지지만 제가 편집장을 하고 그 후에는 다른 편집장을 세워서 편집 책임을 넘기기로 했습니다. 제가 1988년에 창간했다가 2018년에 편집장을 맡았던 <통합연구> 역시 금년 11월부터 새로운 편집장 체제로 출발하게 됩니다. 2010년에 창립한 주빌리교회는 8월 31일부로 담임목사직에서 물러날 예정입니다.

제가 그동안 맡았던 직책들에 더하여 저의 분신과도 같았던 많은 연구자료들도 대부분 흠어 기증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1980년 8월, 한국창조과학회 창립준비위원회 참여를 시작으로 지난 40년간 창조론 연구에 매달렸습니다. 창조론 운동에 참여한 지 오래지 않은 1981년 1월, 저는 창조론 연구는 인생을 걸 만한 연구라고 생각하게 되었고, 언젠가 준비가 되면 제대로 된 창조론 연구서를 출간해 보고자 하는 ‘야심’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야심이 2011년에 출간한 다중격변창조론을 시작으로 일곱 권의 창조론 대강좌 시리즈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저의 창조론 연구가 마무리되어감에 따라 저는 지난 1~2년간 제가 소장한

많은 창조론 자료들(화석, 책, 학술지, 각종 모형, 포스터 등)은 마침 대전에 있는 침례신학대학교로부터 제가 기증하는 자료들을 기초로 창조신학박물관을 만들겠다는 제안을 받게 되었고, 저는 흔쾌히 저의 모든 창조론 자료들을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나머지 영어책 1,500여 권은 에스와티니기독의과대학교 도서관에 기증했습니다.

저의 인생 시간표를 살펴보니 이제 이 자료들은 저보다 더 생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넘겨주어야 할 때가 된 것이 분명합니다. 사랑하고 베푼 것만 남는다는 이 평범한 진리를 이제야 조금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의 품을 떠난 모든 자료들이 후학들의 연구와 교육을 위해 귀하게 사용되기를 기대합니다.

**에스와티니기독의과대학교(EMCU) 사역:** 선생과 학자, 목회자로서의 삶을 정리하면서 이제 저는 저의 인생에서 마지막 하나님의 부름이라 생각되는 바에 순종하고자 합니다. 8월 23일, 아내와 더불어 EMCU에 가서 대학행정 책임자로 섬기려고 합니다. 에스와티니는 남아공 내에 육지섬처럼 존재하는, 아프리카에서 가장 작은 나라이자 유일한 절대왕정 국가입니다. 총 116만의 인구에 경상북도보다 작은 국토를 가진 나라입니다.

이 나라의 가장 큰 당면 과제는 국민의 25% 이상이 후천성면역결핍증(AIDS/HIV)에 감염되어 있고, 감염자들 중 80%가 결핵에 감염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평균수명이 60세가 채 되지 않고, HIV 감염으로 인한 고아들의 수가 전체 인구의 10%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 EMCU는 그 나라의 첫 의과대학이자 유일한 의과대학이기 때문에 국가적인 관심이 지대합니다. EMCU는 36년째 남부 아프리카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아프리카대륙선교회 ACM 김종양 선교사님이 개미 군단 후원자들을 모아서 2013년에 설립한 신생 기독교대학입니다. 현재 940여 명의 학생들이 7개 학과(약학과, 간호학과, 임상병리과, 방사선과, 심리학과, 사회복지학과, 정보통신기술학과)에 재학하고 있고, 곧 의학과가 시작되면 8개 학과가 됩니다. 현재 82명의 교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EMCU는 2018년에 첫 졸업생을 배출한 이래 금년 4회까지 총 6백여 명의 졸업생들을 배출하였습니다. EMCU가 남부 아프리카의 의료와 선교의 허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 2부 양승훈을 말하다

그리스도의 친구, 나의 동역자 양승훈 박사 / 전광식 \_전 고신대학교 총장  
이번 학기에는 신입생들에게 철학개론 과제를 내주면서 ‘나의 인생 재산목록 일곱 가지’를 적어보라고 했다. 어쩌면 이런 자기성찰적인 주제를 가지고 고민해 보는 것이 이 수업에 걸맞고 학생들에게 도전도 되고 더 철학적일 수 있겠다는 생각에서였다.

그러면서 이 질문을 내 자신에게 던져보았다. 과연 내 인생의 재산목록 일곱 가지는 무엇인지, 그리고 나의 지나온 삶의 여정에서 의미 있고 중요했던 일곱 명의 사람을 꼽으려면 누구를 꼽을 수 있을까? 곰곰이 생각해봐도 내 스스로가 선호했던 것은 강의와 설교, 학교행정 등 다소 번잡한 인간관계들을 형성할 수밖에 없었던 ‘활동적인 삶(vita activa)’의 걸 삶과 달리, 고독을 즐기고 자연 속의 몰입 등을 좋아하는 ‘명상적인 삶(vita contemplativa)’의 속 삶이었기에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떠오르지 않는다. 그래도 걸어온 나날들을 반추해보면 내 삶에 이런저런 발자국을 남긴 이들이 몇몇 떠오르는데, 그중에 한 사람이 바로 양승훈 박사이다.

밀레니엄이 끝나는 해였던 1999년, 양 박사는 그의 가장 중요한 책 한 권을 내는데, 바로 『기독교적 세계관』(도서출판CUP, 1999)이다. 나는 이 책의 추천사를 쓰면서 그의 ‘인생의 계절은 가을이 아니라 봄’이기에 그가 ‘열매를 추수하는 기쁨보다 씨앗을 뿌리는 수고를 해야 한다’고 적었는데, 세월의 흐름이 그렇듯 그에게도 어느새 가을이 왔다. 그가 봄날의 수고와 희생으로 뿌린 기독교 세계관 운동의 파종 작업은 이제 세상 곳곳에서 크고 많은 열매들로 맺히게 되었는데, 그의 풍성한 인생 광주리를 바라보면서 ‘나의 동료, 나의 친구, 나의 가까운 친구(시 90:10)’로 지나온 그의 관계들에 대한 몇 가지 개인적인 소회들을 끄적여 보고자 한다.

첫째, 양 박사는 무엇보다 먼저 신앙의 동지였다. 내가 그를 만났을 때, 그는 물리학자요 자연과학자였고, 나는 형이상학자요 신학자였다. 또한 그는 과수원 밭을 가꾸는 등 스스로는 농부티를 내어도 영락없이 유복한 집안 출신답게 도회적 세련미를 잔뜩 풍긴 데 비해서, 나는 공부한답시고 독일이며 영국이며 누벼도 그의 표현처럼 ‘지리산 산중에서나 만나볼 수 있는

흙 내음이 물씬 나는' 숨길 수 없는 촌부였다. 그리고 신앙의 컬러에 있어서는 나는 무지한 자들에 의해 율법주의적이라는 비판을 받을 정도의 엄격한 보수적 신앙 행태와 개혁주의 신학을 고수한 데 비해, 그는 비교적 포용성이 있는 복음주의적 입장을 취하고 있었다.

이렇게 전공이나 모습, 그리고 신앙 내지 신학의 색깔에서 어울리기 어려운 이런 우리가 서로를 신뢰하고 오랜 세월 동안 관계를 이어오게 한 근거에는 그래도 우리가 공유하고 있던 말씀 중심적 신앙과 우리가 추구했던 경건한 인격 및 삶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와 나는 한국 교회가 보이고 있던 개인주의적 신앙, 형식적 교회생활, 이원론적 삶, 그리고 교회의 세속화 등에 대한 비판적, 반성적 시각을 가지고 있었고, 철저히 복음의 원리와 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데에 깊이 공감하고 있었다. 특히 우리가 갖는 회합들은 한결같이 지성적이고 학문적인 모임이었지만, 만날 때마다 매번 합심기도와 말씀묵상에 많은 시간을 할애할 정도로 영적 갈급함과 간절함을 가지고 있었다. 이런 점에서 그는 정말 예수쟁이었다.

둘째, 양 박사는 기독교 세계관 및 학문 운동의 동반자였다. 주지하는 바대로 한국에서의 기독교 세계관 운동과 학문 운동은 1980년대 중반부터 기독교 학자들을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이 운동들은 기독교대학설립동역회(이하 '기대설')와 기독교학문연구회(이하 '기학연')가 주축이 되어 전개되었는데, 전자는 대구와 부산 등 지방을 중심으로 주로 카이스트 출신의 과학자들에 의해, 후자는 주로 서울에 있던 기독교 인문학자들에 의해 진행되었다. 특히 기대설을 이끌고 있던 사람이 바로 카이스트 출신의 물리학자면서 당시 경북대 교수로 재직하고 있던 양 박사였던 것이다. 한국에서 기독교 세계관 및 대학 설립운동은 그를 빼고는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양 박사는 이 분야의 진정한 선구자요 선도자였다.

당시 신학계에 속해 있었던 나는 지방에 있다가 독일로 유학을 떠났기에 애당초 이런 운동들을 잘 모르고 있었다. 그런데 같은 교단 내의 후학으로 당시 기대설 간사를 맡고 있던 현 경북대 문계완 교수가 연락이 와서 한국에서 이런 운동이 일어났으니 참여했으면 하고 강력하게 권유한 것이 계기가 되었다. 그렇게 시작된 기대설에의 동참을 통해서 귀국 직후 부산 기대설이 주관한 부산 기독교 세계관학교를 맡게 되었고, 장기간 <통합연구>

편집인으로도 봉사하게 되었으며, 나아가 여러 책을 이 기관의 출판사인 도서출판CUP에서 발간하게 되었다.

특히 양 박사는 기대설이 세운 밴쿠버기독교세계관대학원(VIEW) 원장으로 가게 되었는데, 나는 1998년 학교 설립 시 그 학교의 첫 강의를 내가 맡는 등 그 이후 무려 십수 년에 걸쳐 매년 두 차례씩 그곳을 방문하여 강의도 하고 양 박사와 많은 교제를 나누곤 하였다. 그리고 기대설 실행위원 뿐 아니라,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이하 '동역회')에서도 오랫동안 같이 이사로 봉사하는 등 솔한 세월을 함께 하게 되었다. 양 박사는 대단한 이론을 겸전하고 있었지만, 그래도 우리 운동에서는 주로 내가 이론가 행세를 했다면 양박사는 실천가였으므로 우리 둘이 이 운동의 이론과 실천의 실제적인 쌍두마차노릇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으로 본다. 하여튼 이런 점에서 그는 정말 열심쟁이였다.

셋째, 양 박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비전의 동역자이다. 양 박사와 대화하거나 교제해본 이들은 누구나 그가 늘 가슴에 새로운 꿈들을 품고 있음을 알게 된다. 양 박사는 범인들은 따라잡기 어려울 정도로 본인의 삶이나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새로운 꿈을 꾸고 비전들을 실천해간다. 카이스트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정말 약관의 나이에 모교인 국립대 교수가 되어서도 대구 시내를 떠나 평광동 시골로 들어가 과수원이 딸린 농가에 살면서 농사를 짓고 살았다.

그리고 또 얼마 지나지 않아 교수직을 아예 던지고 캐나다로 떠나는 과감한 결단을 한다. 기독교 세계관을 가르치는 좋은 교육기관을 세우기 위해 전 세계를 살핀 후에 캐나다 밴쿠버를 선정하여 그 근교의 기독교 대학인 트리니티웨스턴대학의 ACTS 신학대학원과 협력하여 VIEW를 설립하였던 것이다.

그곳에서도 그저 안주한 것이 아니었다. 기독교 세계관을 가르치면서 동시에 미국 등지에 창조교육프로그램을 진행했고, 주빌리채플이라는 교회도 설립했다. 어디 그뿐인가? 이미 카이스트 재학시절인 1981년에 한국창조과학회를 창립하였고, 그 후 기대설 중심의 기독교 세계관 운동을 하면서도 제 학문 분야를 성경의 진리 위에 구축하려는 학술단체인 통합연구학회



도 만들고 학술지 <통합연구>를 간행하였다. 나아가 출판사 도서출판CUP 설립, 기독교대학설립의 비전 및 운동, 지역교회를 통한 기독교 세계관운동의 보급과 확산, VIEW 운영을 통한 제자들 배출, 기학연과의 통합을 통한 기독교학술세계관동역회의 구상 등 많은 일들이 대개 그의 비전으로 시작되고 성취된 것들이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의 이런 다채로운 비전들과 사역에 나는 줄곧 동행하면서 마음과 뜻을 같이하고 같은 걸음으로 헤쳐오게 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누구보다 가까이 지켜보면서 그가 진정한 꿈쟁이라는 것을 거듭거듭 발견하게 된 것이다.

그렇게 사역의 동반자로 살아오다가 근년에 이르러 내가 학교 행정을 맡는 등 나름대로의 분주한 삶으로 우리가 이전처럼 종종 만나지 못하고 그에 대한 소식도 뜸하게 듣고 있었는데, 어느새 은퇴라고 하니 우리가 헤쳐 온 지난 세월이 그야말로 주마등처럼 스쳐간다. 시편에서 모세가 고백한 대로 그야말로 ‘신속히 날아가는’(시 90:10) 것이 우리의 인생인 듯하다.

하지만 주님께서 주신 생명의 길이를 보면 아직도 갈 길이 요원하니 나는 그가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그간 살아온 방식대로 한결같이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오로지 주님만 따르는 예수쟁이,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에는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놓는 열심쟁이, 그리고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청년처럼 꿈꾸다가 가는 꿈쟁이가 되길 바라본다. 나 역시 그의 삶을 조금이라도 더 흉내 내고 싶을 뿐이다. 이렇든 저렇든 순례자의 길에 이런 좋은 벗을 만나게 되었으니 또한 기쁘지 않겠는가(不亦說乎), 세월이 흘러도 한결같은 그의 모습을 보니 또한 즐겁지 않겠는가(不亦樂乎)?

### 3부 VIEW를 사랑하다

이원론을 극복하기 위해 떠난 여정 / 오성수 \_원주중앙장로교회 담임목사  
무난히도 무더웠던 1999년 7월, 어린 두 딸을 데리고 우리 부부는 한국을 떠나 캐나다 밴쿠버 공항에 내렸다. 예전에 마산 창신고등학교에서 함께 교사로 섬겼던 박성한 선생님이 공항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그 차를 타고 양승훈 교수님의 집으로 갔다. 그날로 거주할 집을 찾아야 했는데, 박진경

사모님이 보아둔 몇몇 아파트를 둘러보고 써리(Surrey)라는 지역의 한 아파트에 집을 풀었다.

VIEW 초창기에는 양승훈 교수님과 박진경 사모님이 학교 행정만이 아니라 입국하는 신입생들의 정착까지 돕는 일을 했다. 싱글로 오신 분은 학교 근처에 있는 캐나다인 집에서 홈스테이를 하였고, 가정을 가진 분은 아파트나 단독하우스를 월세로 임대해 생활하게 되었다. 아파트 계약하는 일을 도운 후, 박진경 사모님이 피곤함에 젖어 털썩 주저앉는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하다. 그토록 더운 여름이었건만, 아파트에서 멀리 보이는 산 위에는 눈이 있었다. 아파트 앞에 뛰어다니는 다람쥐를 보는 것도 신기했다.

태평양을 건너 밴쿠버에 있는 VIEW에 공부하러 올 때는 두 가지 목적이 있었다. 첫 번째는 목사로서 성도들의 삶의 이원론 문제를 해결해주고 싶었다. 교회에서는 직분자요 신앙인이지만 직장과 사회에서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삶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보았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세계화 시대에 공용어라 할 수 있는 영어를 잘하고 싶었다. 부부가 모두 수업을 할 경우, 배우자는 30%의 수업료만 내기에 우리 부부는 각각 학생비자를 받아 함께 공부했다. 공항에 도착하고 그날에 아파트 임대 계약을 마치고 입주했는데, 바로 그 다음 날부터 곧바로 시작된 VIEW의 첫 수업, 1기로 입학한 아내와 나는 불안해하는 어린 두 딸을 양승훈 교수님 댁에 맡기고, 랭리(Langley)에 있는 트리니티웨스턴대학으로 갔다. 아직 차도 구하지 못한 상태에서 수업은 온종일 진행되었다.

VIEW 1기로 입학한 원우들은 기독교 세계관에 초점을 맞춘 기독교학 석사과정과 디플로마 과정을 합하여 약 30여 명이었다. 대학 교수, 교사, 의사, 목사, 일반 대학교와 대학원 졸업생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몇몇 분은 VIEW 대학원생이지만 동시에 VIEW 교수로 섬기기도 했다. 모든 학문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공부해야 하는 대학원은 세계에서 VIEW가 유일했다.

그렇기에 모두 사명감에 불타올랐고, VIEW 1기가 잘해야 한다는 생각에 모두 열심히 공부했다. 영어로 진행된 수업은 오후에 남아 개인 지도까지 받아야 했기에 집으로 돌아오면 오후 8시가 넘었다. 당시에는 가계가 얼마

나 일찍 문을 닫는지 그 시간이면 음식 재료를 구할 수도 없었다. 한동안은 아파트 앞에 놓인 신문지를 가져다가 펴 놓고 한국에서 가져온 일회용 김과 캔으로 된 참치 통조림을 반찬으로 해서 꾸역꾸역 밥을 먹어야 했다. 우리는 그렇게 VIEW의 첫 학기를 시작했다.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학문 자체가 당시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았기에, 완성도 높은 학과목이나 준비된 교수요원이 부족할 수밖에 없었다. ACTS 신학대학원 이하 ACIS에서 기존에 가르치는 신학과 관련된 과목 외에도 VIEW에서는 기독교 세계관으로 과학, 경제, 의료, 가정, 예술, 문화, 환경 등의 영역을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가를 공부했다.

난생처음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을 연구하는 식물학자가 되기도 했고, 반고흐, 렘브란트, 루오 등의 작품을 감상하며 미술 평론가가 되기도 했다. 창조론 현장학습을 하면서 하나님의 창조세계를 노래하는 과학자가 되기도 했고, 가정 사역과 의료윤리, 그리고 환경문제를 공부하기도 했다. VIEW가 트리니티웨스턴대학 울타리 안에 있어서 우리는 자유롭게 공부할 수 있었고, 잘 갖추어진 도서관의 자료들을 마음껏 활용할 수 있었다.

교수들의 열정적인 수업을 따라가면서 낯선 외국 땅에 적응하느라 원우들 모두 버거운 시간이었다. 아직 영어가 서툰데, 캐나다 은행에서 계좌도 만들어야 했고, 차량도 구입해야 했고, 필요한 생활용품도 마련해야 했다. 그 와중에 학교에서의 수업은 온종일 진행되었고, 영어 수업의 경우에는 수업을 마친 후 제대로 이해했는지를 점검하며 개인 지도까지 받느라 오후 늦게까지 진행되었다. 게다가 수강하는 과목마다 읽어야 할 책들과 서평을 제출해야 할 과제들이 상당했다. 그야말로 강행군의 연속이었다.

그러다가 처음으로 VIEW 가족 야유회를 가졌다. 우리 부부도 두 딸을 데리고 야유회 장소인 골든이어스공원으로 향했는데, “우와~” 하는 탄성이 저절로 나왔다. 하나님이 창조한 웅장한 자연의 아름다움이 그동안 힘겹게 공부했던 원우들의 마음을 한꺼번에 위로해 주었다. 그곳으로 향하는 길 양편은 울창한 삼림으로 가득했고, 멀리 보이는 산에는 눈이 덮여 있었다. 도착한 공원에는 빙하가 녹아내린 물로 가득한 깨끗하고 아름다운 호수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야말로 에덴동산을 떠올리게 했다.

2년만 공부하면 이원론 문제를 해결하고 영어도 잘하고 귀국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지만, 세계관 공부도 그렇고 영어도 그렇게 단시간에 원하는 만큼 향상되지는 않았다. 특히 신앙과 삶의 이원론 문제는 공부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님을 깨달았다. 기독교 세계관 공부를 통해 다양한 영역에서 기독교적 조망을 한들 그것을 실천하고자 하는 힘이 나에게 없었던 것 같다. 기독교 세계관 공부가 사변화되지 않기 위해서는 성령의 능력을 덧입는 말씀과 기도를 다시금 붙잡아야 했다. 양승훈 교수님의 재촉 덕분에 마침내 석사 학위 논문을 마쳤다.

캐나다에서 공부하면서 현지 이민교회를 섬길 수 있었고, VIEW를 졸업한 후, 개인적으로 캐리신학대학원에서 목회학 박사과정을 공부했다. 당초 2년을 예상했지만, 12년을 캐나다에서 공부하고 사역하다 2011년 2월에 한국으로 귀국했고, 지금은 강원도 원주에서 목회하고 있다.

지나간 12년의 VIEW와 캐나다에서의 생활은 광야였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가 있었다. 가진 것이 없어도 불편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주시는 일용할 양식으로 배불리 먹었다. VIEW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많은 분들을 만났고, 그러한 분들과 교제하며 동역할 수 있는 소중한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 동역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얼마나 필요한지 배운 시간이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을 하나님은 너무도 귀하게 보시고 기뻐하시리라 생각한다.

VIEW에서의 생활은 북미의 삶과 대학교를 경험하게 했고, 고국을 위해 기도하는 이민교회가 있음을 보게 했고, 웅장한 자연 속에 창조주 하나님이 주시는 힐링을 누리게 했다. VIEW가 위치한 밴쿠버는 이러한 이점을 최대한 누릴 수 있는 장소였고, 자녀들에게 더 넓은 세상을 경험케 한 것은 덤으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목회를 하면서도 마음 한 켠에 VIEW 시절에 꿈꾸었던, 모든 삶의 영역에 하나님의 주권이 선포되기를 기도하고 있다. 내가 섬기는 성도들이 교회와 세상이라는 이원론적 삶이 아니라 어디서든 주님의 증인다운 삶을 살기를 꿈꾸며 목회하고 있다.

## 4부 VIEW를 살아가다 \_ 직장에서

평신도 언론 경영자와 기독교 세계관 / 김지방 \_ 쿠키미디어 대표

**양승훈 교수님과 첫 만남:** 국민일보 기자로 기독교 섹션 지면에 심층 인터뷰 기사를 쓰기 위해 양승훈 교수님을 2009년 1월에 처음 만났다. 평소에도 창조과학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기사를 쓰고 싶었는데, 마침 종의 기원 출간 150주년을 맞아 한국에서 다양한 이벤트가 예고되던 시점이었다.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창조과학과 진화론을 주제로 인터뷰를 한다면 그때나 지금이나 양 교수님이 가장 적임자였다. 한국에 오신다는 소식을 접하고 연락을 드렸는데, 흔쾌히 응해주셨다.

당시 양 교수님은 바로 몇 달 전 창조과학회와 젊은지구론을 두고 공개적인 공방을 벌이고 결별한 상황이었다. 무척 민감하고 조심스러운 시기였는데도 기꺼이 인터뷰를 허락해주셨다. 인터뷰 날짜도 한국에 오신 다음 날이었다. 시차 적응도 안 되었을 시기였는데 양 교수님 특유의 활기차고 담백한 에너지로 기자의 질문에 답을 해주셨다.

젊은지구론의 과학적 허점은 물론이고 창조과학의 해석학적 한계, 노아의 방주는 실재하나, 진화론과 과학철학 비평, 인문학과 신앙, 남자에게 젖꼭지는 왜 있는가, 기독교 세계관 운동 평가, 한국이 아닌 밴쿠버에서 활동하는 이유 등등 두서없이 질문을 던졌다. 지금도 그때의 양 교수님의 모습이 기억난다. 조금 무례하거나 당황스러울 수 있는 기자의 질문에 전혀 귀찮은 기색없이 정성을 다해 답해주셨다. 또 어떤 질문에도 차분하게, 또 핵심을 잘 요약해서 정확하게 얘기해주셨다.

양 교수님 인터뷰 기사가 국민일보 지면에 보도된 뒤부터, 한국의 보수교회 안에서도 창조과학을 비판하는 게 신앙에 어긋나는 일이 아니라는 생각들이 조금 더 힘을 얻은 것 같아 개인적으로는 무척 보람 있게 생각한다.

**마음의 속도를 늦춘 오키리나 연주:** 내가 학생으로 밴쿠버기독교세계관대학원 VIEW에 간 때는 10년쯤 뒤인 2018년 가을이었다. 언론진흥재단의 연수 지원 프로그램에 선정돼 1년간 VIEW에서 공부할 수 있었다. 그 사이 10년 동안 개인적으로 많은 일이 있었다. 2011년과 2012년, 언론계

는 큰 진통을 겪었다. 내가 다니는 회사도 173일에 이르는 장기 파업으로 많은 이들이 어려움을 겪었다. 파업의 결과는 상처뿐이었다.

당시 노조위원장을 비롯해 다섯 명의 기자가 회사를 나가야 했고 나도 다른 동료들과 함께 징계를 받았다. 비슷한 시기에 저마다 조금씩 다른 이유로 파업을 했던 다른 언론사들도 대규모 징계와 해직으로 큰 상처를 입었다.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노조위원장직을 1년간 맡았다가 나 자신도 의욕이 많이 소진되었다. 10여 년의 기자 생활 중 처음으로 탈진하는 경험이었다.

당시 나는 물론이고 우리 사회가 경험한 분열과 상처를 어떻게 치유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2013년에 『적과 함께 사는 법』이라는 제목의 책을 출간했다. 남아프리카공화국, 아르헨티나, 프랑스, 미국, 캄보디아 등에서 역사적인 비극을 극복하고 화해하는 길을 찾아가는 이야기를 담은 책이다. 이 책을 쓰면서 나는 다시 기독교 신앙의 가치를 발견했다. 우리의 죄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경험이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고 깊은 절망에서 구원할 수 있다는 점을 깊이 깨닫게 되었다.

2018년 가을학기에 VIEW에 입학했다. 비록 학위 과정을 다 마치지는 못하였지만 1년간 밴쿠버에서 가족과 함께 지내며 오롯이 공부에 집중할 수 있었다. 미션이라는 지역에 있는 캠프루터 수련회장에서 열린 VIEW 오리엔테이션에서 양승훈 교수님의 오카리나 연주를 들으며 서울에서 분주하게 살았던 마음의 속도가 천천히 느려지는 걸 느꼈다. 짧은 재학 기간 중 양승훈, 전성민, 박진경 교수님과는 물론이고 동료 학생들과 맥도날드와 커피 한잔을 두고 신앙과 삶을 나누던 순간들이 기억난다. 벽난로가 늘 따뜻하게 켜져 있던 포스막빌딩 1층의 컬리지룸에서 도시락을 함께 먹던 시간도 참 좋았다.

VIEW에서 공부하며 기독교 세계관 운동을 두고 많은 이들이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 기독교 세계관이 또 하나의 도그마나 사조가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 신앙의 풍부한 유산과 거기서 길어 올린 정수를 확인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그 의미를 재해석하고 실천하는 일이 되어야 한다고 나름대로 정리했다. 삶의 더 깊은 구석구석까지 신앙인의 마음으로 살겠다고 다짐하며 VIEW에서 보낸 1년을 마무리했다.

**돌아온 한국에서 새롭게 벌어진 일들:** 1년 만에 한국에 돌아온 뒤 뜻밖의 일들이 계속 이어졌다. 회사에서 기독교 영상을 만드는 유튜브 담당 부서를 만들고 나에게 그 책임을 맡겼다. 20년 동안 텍스트 기사만 써온 나에게 완전히 새로운 일이었다. VIEW에서 고민하고 공부했던 내용을 나름대로 적용해보기로 했다.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이 함께 볼 수 있는 영상, 교회와 기독교 신앙의 긍정적인 유산을 찾아가는 영상을 만들자고 방향을 정했다.

성탄절을 맞아 종로5가 기독교회관 지하에서 미니 콘서트를 개최하기도 했고, 코로나19가 가장 먼저 발생한 대구를 찾아가 교회가 어떻게 팬데믹에 대처하는지 보여주었다. 또 2020년 4월의 21대 총선거를 앞두고 한국 교회 안에 보수와 진보의 합리적인 목소리를 연속 인터뷰로 소개했다. 전 광훈류의 극우적인 모습이 교회의 전부인 것처럼 알려졌던 상황에서 교회 안에도 다양한 목소리와 논의가 있다는 걸 보여줄 수 있어 보람을 느꼈다.

2020년 4월 말, 나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일을 맡게 되었다. 국민일보의 자회사인 쿠키미디어 사장으로 온라인 뉴스매체인 쿠키뉴스와 케이블 TV 채널인 쿠키건강TV를 운영하는 임무가 나에게 주어졌다. 아직 40대 초짜 부장이었던 내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큰 일이지만, 많은 분이 축하해주시고 격려해주셨다. 회사에서 왜 부족한 나에게 이런 중책을 맡겼을까. 아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기대하시고 이 길로 인도하셨을까. 질문하고 기도하며 하루하루 일하고 있다.

질문에 답을 제대로 얻지는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뉴스, 갈등과 분열보다는 이해와 공감을 일으키는 뉴스를 만들자고 마음을 먹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고, 직접 복음을 전하지는 않더라도 복음의 씨가 싹을 틔울 수 있도록 마음 받을 가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오늘날 언론은 스스로 비난을 자초하는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무분별하게 베껴 쓰는 기사, 광고주의 눈치를 보는 기사, 정치적 편향으로 사실을 왜곡하는 기사, 호기심을 자극해 조회수를 올리려고만 하는 기사를 쓰느라 정작 꼭 필요한 취재 보도는 놓치는 경우가 많다. 한국 사회에 갈등이 더

커지고 이념과 경제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데 정작 소통과 이해를 증진하는 역할을 해야 할 언론은 제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쿠키뉴스의 책임을 맡으면서 변화를 시도해 보았다. 속보 경쟁을 포기하고 기자의 취재와 분석이 들어간 기사를 쓰는 데 더 집중하기로 했다. 또 수많은 매체 속에서 쿠키뉴스의 존재 이유를 찾기 위해, 젊은 세대의 목소리와 시각을 담은 기사를 발굴하도록 기자들을 독려하고 있다. 이런 변화를 실행하기 위해선 그동안 회사가 의존했던 수익을 적지 않게 포기해야 했다. 어쩌면 아직 경영을 잘 모르는 초짜 사장이었기에 변화를 시도할 수 있었는지도 모르겠다.

기자들 역시 처음엔 속보 경쟁과 무의미한 기사 남발에서 자유로워졌다고 환영했지만, 더 많은 품을 들이고 더 깊이 고민해서 기사를 쓰는 일이 쉽지 않다는 걸 체감하고 있다. 다행히도 내가 사장을 맡고 난 뒤 2년간 회사는 변화 속에서도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좋은 기사로 긍정적인 평가도 받고, 기자들도 보람을 느끼고 있다. 회사의 수익도 늘어나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 투자도 하고 또 직원들의 수고에 보답해 성과급을 나눠줄 수 있었다. 아직 부족한 점이 많지만, 하나님의 은혜 속에 계속 전진하고 있다.

요즘은 가끔 나의 은퇴를 생각한다. 양승훈 교수님께서 에스와티니로 훌쩍 떠나는 모습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나도 교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좇아 나의 평판과 명예와 안락함을 포기하고 떠날 수 있을까. 낯설고 위험해 보이는 부름에 기꺼이 응답할 용기를 가질 수 있을까. 그런 부름을 귀 기울여 들을 수 있는 영성을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을까. 여러 질문을 나 자신에게 던지게 되었다.

VIEW 한국 동문회 포럼에서 자주 얘기하듯이, 기독교적 세계관이란 어떤 패러다임이나 이념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좇아가고자 하는 마음가짐에 더 가까울지 모르겠다. 평신도로서 언론인으로서 또한 경영자로 살아가는 나에게 양승훈 교수님과 VIEW에서 얻은 교훈들이 시간이 갈수록 소중하게 느껴진다.